

韓國經濟展望과 政策對應

具 本 湖
 <韓國開發研究院 院長>

1. 최근의 經濟動向

1) 成長과 雇備

— 상반기중 經濟는 9.1%의 成長을 기록하여 작년말 걸프事態發生으로 인한 일시적 成長鈍化에서 다시 강한 成長勢로 반전
 • 1/4분기중의 高速成長은 固定投資 특히 建設投資가 주도하였으나 2/4분기중에는 建設投資가 여전히 經濟成長을 주도하고 있으

나 그 增加勢가 크게 둔화되는 한편 實質輸出의 증가세가 크게 가속됨.
 • 建設投資增加鈍化의 영향으로 設備投資의 增加도 다소 둔화되었으나 消費支出의 증가는 오히려 가속됨.
 • 前分期에 비하여 2/4분기중 實質輸入의 증가세는 상당히鈍化되었으나 그래도 높은 經濟成長率을 반영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
 — 上半期の 빠른 經濟成長은 활동부문별로는 여전히 建設業 및 서비스業에 의하여 주도됨.

<表 1> 部門別 需要動向

(前年同期對比增加率：%)

	1990			1991		
	1/4	2/4	上半期	1/4	2/4	上半期
實質 GNP增加率	10.5	9.9	10.2	8.9	9.2	9.1
總 消 費	11.1	10.9	11.0	8.6	9.4	8.9
固 定 投 資	31.5	24.7	27.6	20.9	14.8	17.5
(建 設)	43.2	29.1	34.6	24.4	14.4	18.5
(設 備)	21.0	19.2	20.1	17.3	15.5	16.3
商 品 輸 出	0.1	4.8	2.5	9.2	14.3	11.8
商 品 輸 入	15.4	15.3	15.4	19.6	15.9	17.7

<表 2> 主要部門의 成長率

(%)

	1990			1991		
	1/4	2/4	上半期	1/4	2/4	上半期
實質 GDP增加率	10.0	9.7	9.8	9.1	9.4	9.2
農 林 漁 業	-0.9	-3.6	-2.7	2.6	4.2	3.7
製 造 業	7.1	8.9	8.1	7.5	8.1	7.8
建 設 業	36.9	24.9	29.6	22.7	15.4	18.4
서 비 스 業	9.8	9.2	9.5	9.8	11.2	10.5

높은 經濟成長率이 91년중에도 지속됨에 따라 失業率이 사상최저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또한 人力難이 심화되고 있음.

• 就業增加 역시 建設業을 위시한 社會間接資本(SOC) 및 기타의 서비스 부문이 주도함.

<表 3> 就業者增加率 및 失業率

(%)

	1990			1991		
	1/4	2/4	7月	1/4	2/4	7月
經濟活動人口增加 1)	3.7	2.3	3.0	3.3	2.5	2.3
就業者增加 1)	3.8	2.6	3.1	3.5	2.6	2.4
農 林 漁 業	1.9	-3.1	-4.7	-9.1	-5.7	-5.5
製 造 業	-2.5	-1.2	1.1	5.5	2.4	0.3
SOC 및 其地 (建 設 業)	8.1 (18.7)	7.1 (15.8)	7.5 (19.3)	6.0 (18.2)	6.2 (15.4)	6.6 (15.2)
失 業 率	3.1	2.1	2.2	3.0	2.1	2.2

註：1) 前年同期對比

- 7월말 현재 금년의 勞使紛糾發生件數는 201로서 작년동기보다 27%하락하였으나 紛糾件當 參加勤勞者數 및 勤勞時間損失은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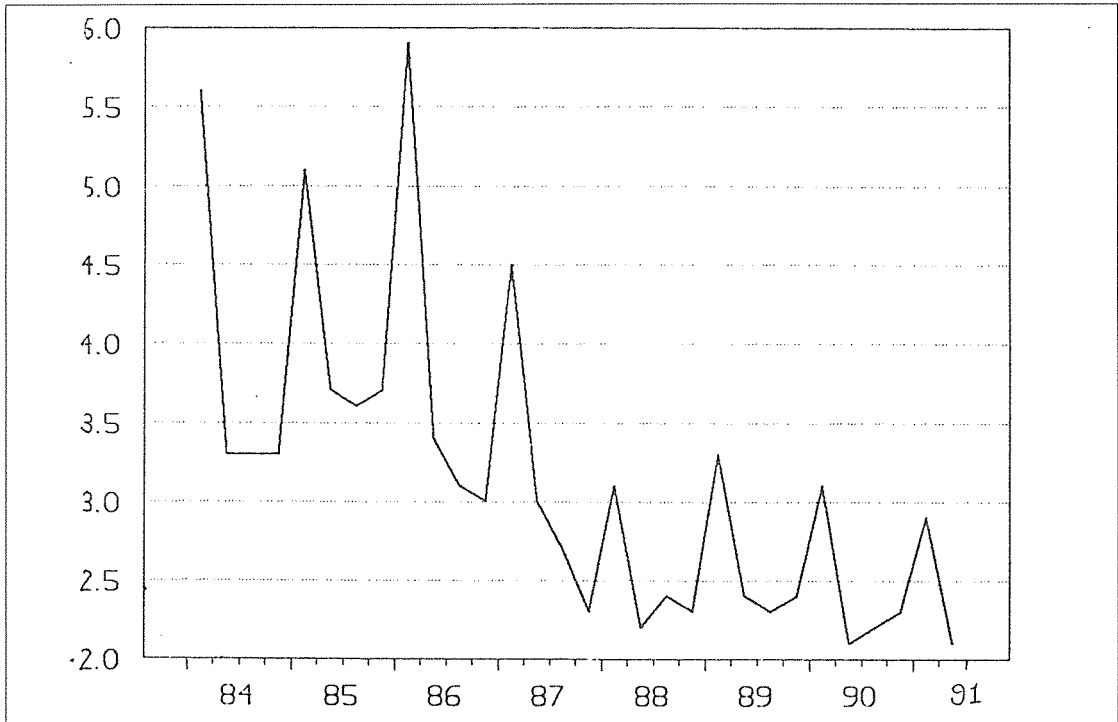
%와 96% 증가하여 勞使紛糾가 대형화되고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表 4 > 勞使紛糾指標

	90.1~7	91.1~7	增加率(91/90)
紛糾件數	276	201	-27.2
解決件數	256	192	-
參加者數	118,381	151,429	27.9
勤勞損失, 時間	9,467,556	13,531,390	42.9
紛糾件當參加者數, %	429	753	75.5
紛糾件當勤勞損失, 時間	34,303	67,320	96.3

[圖 1] 失業率推移

(%)



2) 物價와 賃金 및 國際競爭力

— 8월말까지 前年末對比 消費者物價와 상승은 8.3%에 이르고 反面 都賣物價의 상승은 2.1%에 그치고 있음.

• 物價上昇은 個人서비스 및 農畜水産物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

• 都賣物價의 상대적 안정은 石油類價格의 下落 및 工産品價格의 상대적 안정에 基因하고 있음.

<表 5> 物價動向

(前年末對比上昇率：%)

	消費者物價				都賣物價			
	3月	6月	7月	8月	3月	6月	7月	8月
總指數	4.9	6.5	7.0	8.3	1.3	1.2	1.3	2.1
農畜水産物	6.7	7.6	7.5	11.3	3.8	2.5	3.2	7.1
工産品	1.8	3.4	3.7	4.1	1.0	1.2	1.3	1.4
公共料金	6.2	7.2	8.1	8.1	0.0	1.9	1.9	1.9
石油類	0.0	2.4	-2.2	-2.2	-3.0	-4.2	-6.6	-6.6
집 賃	1.8	6.0	6.9	7.2	-	-	-	-
個人서비스	10.8	13.7	15.1	15.9	-	-	-	-

－ 前年同期對比로 物價上昇勢는 年初이후 점진적 둔화추세를 보였으나 8월에 다시 가속되

는 모습을 보여 年平均 消費者物價上昇이 1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됨.

<表 6> 物價推移

(前年同期對比：%)

	1990				1991			
	1/4	2/4	3/4	4/4	1/4	2/4	7月	8月
消費者物價	6.5	8.9	9.7	8.9	11.0	9.1	8.5	9.5
都賣物價	1.8	3.2	4.9	6.9	7.9	5.8	5.4	5.4

－ 土地價格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住宅價格은 작년초이후 상승세의 둔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년 2/4분기를 전후해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함.

－ 금년들어 全産業名目賃金은 그 상승율이 1/4분기중 작년 동기보다 하락하여 15.8%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음.

• 製造業의 賃金上昇率은 全産業平均을 다소 상회하고 있음.

• 한편 上半期中 附加價值基準, 生産性增加는 5%내외에 그치고 있어 單位勞動費用은 10%내외의 상승율을 보임.

<表 7> 不動産價格動向

(前年末對比上昇率：%)

	1990				1991			
	3月	6月	9月	12月	3月	6月	7月	8月
全國土地價格 1)	6.9	3.7	3.9	4.7	4.7	3.4	—	—
住宅賣買價格	8.4	13.3	17.6	20.2	3.3	5.1	4.7	4.3
住宅專賣價格	17.5	17.6	18.9	18.6	4.4	4.3	3.3	2.9

註：1) 前分期末月對比 增加率

— 86년이후 임금급등세로 인하여 韓國產業의 費用側面의 國際競爭力은 누적적으로 급격히 惡化되어 惡.

• 1986~90년의 기간중 한국 製造業의 資金水準은 2배로(100.6%) 상승하고 그 결과 달러貨기준 單位勞動費用은 2배 이상으로(108.9%) 상승.

• 같은 기간중 일본의 경우 資金水準은 15.3

% 증가에 그치고 單位勞動費用은 7.1% 증가에 그침.

• 같은 기간중 대만의 資金水準은 58.5% 상승하고 單位勞動費用은 62.0% 상승.

— 單位勞動費用의 急騰의 상당부분은 輸出單價의 상승(1986~90년기간중 36.9%)으로 전가되고 나머지 부분은 輸出採算性의 惡化를 가져 왔음.

<表 8> 賃金指標

(前年同期對比上昇率：%)

	1990					1991	
	1/4	2/4	3/4	4/4	年間	1/4	2/4 1)
全産業名目賃金 (製造業)	23.3 (27.0)	17.4 (17.5)	17.5 (18.1)	17.7 (19.1)	18.9 (20.4)	15.8 (16.1)	17.4 (18.0)
勞動生産性 2)	5.8	6.0	5.5	4.2	5.4	6.6	4.4
單位勞動費用 3)	16.5	10.8	11.4	13.0	12.8	8.6	12.5

註：1) 임금의 경우 4~5월 평균치임

2) 附加價值/雇傭

3) 名目賃金/勞動生産性

<表 9> 主要競爭國의 製造業單位勞動費用 推移

(指數：1986=100.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86~90 年上昇率(%)
韓 國	名目賃金	91.6	100.0	111.6	133.5	166.9	200.6	19.0
	生産性	92.3	100.0	102.9	110.4	110.4	119.6	4.6
	單位勞動費用	99.2	100.0	108.5	120.9	151.2	167.8	13.8
	對美換率 1)	98.7	100.0	93.3	82.9	76.2	80.3	-5.3
	單位勞動費用(\$)	100.5	100.0	116.2	145.8	198.4	208.9	20.2
			(-0.1)	(16.2)	(25.5)	(36.1)	(5.3)	
	輸出單價	97.9	100.0	110.1	123.1	137.3	136.9	8.2
			(2.1)	(10.1)	(13.6)	(9.7)	(-0.3)	
日 本	名目賃金	98.1	100.0	102.6	104.4	110.2	115.3	3.6
	生産性	102.1	100.0	108.8	116.4	121.4	125.3 2)	5.8
	單位勞動費用	96.0	100.0	94.3	89.6	90.8	92.0	-2.1
	對美換率 1)	141.5	100.0	85.8	76.0	81.9	85.9	-3.7
	單位勞動費用(\$)	67.8	100.0	109.9	117.9	110.9	107.1	1.7
			(47.5)	(9.9)	(7.3)	(-5.9)	(-3.4)	
	輸出單價	83.5	100.0	109.4	120.4	118.6	118.4	4.3
			(19.8)	(9.4)	(10.1)	(-1.5)	(-0.2)	
臺 灣	名目賃金	90.8	100.0	109.9	121.9	139.7	158.5	12.2
	生産性	90.1	100.0	110.5	116.4	127.0	137.7	8.3
	單位勞動費用	100.8	100.0	99.5	104.7	110.0	115.1	3.6
	對美換率 1)	105.3	100.0	84.2	75.6	69.8	71.1	-8.2
	單位勞動比率(\$)	95.7	100.0	118.2	138.6	157.6	162.0	12.8
			(4.5)	(18.2)	(17.3)	(13.7)	(2.8)	
	輸出單價	96.9	100.0	115.3	128.3	136.1	135.0	7.8
			(3.2)	(15.3)	(11.3)	(6.1)	(-0.8)	

註：()안은 前年對比上昇率, %.

1) 換率：期間平均基準.

2) 일본의 90년 製造業 GDP는 .일본노무라종합 연구소의 추정치임.

3) 換率과 國際收支

— 89년 중반이후 달러貨에 대하여 절하세를 유지하고 있는 원貨는 금년들어 切下勢를 크게 둔화시켜 8월말까지의 切下幅이 2.6%에 그치고 있으며, 7월초 이후로는 切下勢가 다

소 가속되고 있음.

• 한편 달러貨에 대하여 강세를 보여오던 日 엔貨와 獨마르크貨는 年初이후 對달러 절하趨勢를 보이고 있음.

• 그결과 名目實効換率上으로 원貨는 금년 상반기중 3.7%에 切上됨.

• 上半期중 實質實効換率上 원貨의 切上幅은 4.6%에 이르고 있음.

<表 10> 원貨의 切下率

(前年同期對比：%)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4	2/4
對달러貨換率	1.2	-6.7	-11.2	-8.1	5.5	4.5 (0.9)	2.1 (1.4)
對엔貨換率	43.3	8.7	0.3	-14.7	0.5	15.5 (-1.4)	15.1 (-3.7)
名目實効換率	14.4	0.4	-6.9	-9.3	4.7	11.5 (-0.4)	7.4 (-3.7)
實質實効換率	17.9	1.2	-6.2	-11.3	6.4	5.5 (-2.3)	3.9 (-4.6)

註：各分基의 平均換率 基準.

()안은 前年 4/4분기대비 절하율.

實効換率計算에서는 미국, 독일, 日本,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및 캐나다貨에 대한 원貨환율을 가중평균함. 實質換率計算에서는 名目實効換率을 한국의 도매물가와 해외의 도매물가의 比로 換價함.

- 1/4분기중 35.7억불의 규모로 확대되었던 貿易收支赤字가 2/4분기 중에는 15.6억불로 감소됨. 그러나 前年同期對比로는 貿易收支赤字가 크게 확대됨.

• 前年同期對比로 볼때 實質輸出의 높은 증가세 회복으로 名目輸出增加勢도 크게 가속되었음.

• 작년동기의 높은 實質輸入增加勢가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고, 또한 여기에 輸入單價의 前年同期對比 상승이 가세하여 名目輸入增加勢가 작년의 두배의 수증으로 강화됨.

• 그결과 貿易收支는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작년동기대비로 악화되어 上半期全體로는 51.3억불의 적자를 기록.

<表 11> 貿易收支動向

(億달러, %)

	1990			1991		
	1/4	2/4	上半期	1/4	2/4	上半期
貿易收支	-10.5	-3.0	-13.5	-35.7	-15.6	-51.3
輸 出	139.2 (-1.4) [0.1]	154.1 (2.3) [4.8]	292.3 (0.5) [2.5]	151.3 (9.5) [9.2]	178.6 (15.9) [14.3]	329.9 (12.9) [11.8]
輸 入	148.7 (15.2) [15.4]	157.1 (12.0) [15.3]	305.8 (13.5) [15.4]	187.0 (25.8) [19.6]	194.1 (23.6) [15.9]	381.1 (24.5) [17.7]

註：()=前年同期對比 名目增加率

[]=前年同期對比 實質增加率

－ 7월중에는 名目輸出增加率의 급격한 감소와 名目輸入增加率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貿易收支가 대폭 악화되어 貿易收支의 동향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함.

<表 12> 貿易收支推移

(億달러, %)

	1990					1991				
	1/4	5月	6月	7月	1-7月	1/4	5月	6月	7月	1-7月
貿易收支	-0.5	-3.1	1.0	5.1	-8.4	-35.7	-6.1	-1.4	-9.5	-60.8
輸 出	138.2	50.9	53.8	54.3	346.5	151.3	61.0	61.1	57.8	387.8
	(-1.3)	(4.3)	(0.1)	(7.3)	(1.5)	(9.5)	(19.9)	(13.4)	(6.5)	(11.9)
輸 入	148.7	54.0	52.9	49.2	355.0	187.0	67.0	62.5	67.3	48.5
	(15.2)	(14.8)	(7.7)	(4.0)	12.1	(25.8)	(24.2)	(18.2)	(36.8)	(26.4)

註：()안은 前年同期對比增加率

－ 금년도 上半期중의 높은 輸出增加率은 EC, 亞太地域 및 中南美의 開途國 및 북방의 수출호조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전자전 기, 선박, 자동차, 철강 등 重化學工業製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表 13> 主要製品別·地域別 輸出推移

(億달러, %)

	1990	1991	
		上半期	7月
總輸出	650 (4.2)	340 (14.2)	56 (2.4)
1次商品	33(-4.0)	17 (4.1)	3 (7.0)
輕工業製品	250 (2.3)	121 (2.2)	24 (4.0)
重化學製品	367 (6.4)	202 (23.9)	30 (0.9)
美 國	144(-6.2)	88 (-4.0)	10(-12.9)
日 本	126(-6.1)	59 (5.1)	7 (0.1)
E C	88 (19.6)	50 (31.0)	13 (-1.1)
亞太 地域	120 (15.2)	75 (40.9)	13 (34.0)
中 南 美	21 (20.9)	12 (37.5)	21 (29.4)
北 方	17 (84.2)	11 (46.4)	2 (78.5)
東 歐	5 (104.1)	4 (65.5)	0.2 (-1.4)
蘇 聯	5 (149.9)	2 (6.7)	0.2(-29.0)

註：通關기준. ()안은 前年同期對比增加率

資料：貿易協會

- 한편 섬유직물을 제외한 輕工業製品의 수출과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은 89년이후 부진함을 면치못하고 있으며 특히 對美輸出은 마이너스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7월중에는 重化學製品의 수출과 EC 및 北方으로의 수출도 감작스런 부진함을 보임.
- 최근까지의 금년도 輸入動向을 보면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輸入이 모든 종류의 재화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內需用輸入이 輸入增加를 주도하고 있어 輸入急增勢가 주로 內需의 強勢에 기인하고 있음이 나타남.

- 또한 국산품의 價格競爭力弱化和 國內市場開放의 확대도 수입급증에 기여하였을 것임.

<表 14> 區分別 輸入動向

(億달러, %)

		構成	1990	1991. 1~7
總 輸 入		100.0	698 (13.6)	476 (25.5)
用途別	內 需 用	67.8	473 (21.4)	329 (31.2)
	輸 出 用	32.2	225 (0.2)	147 (14.3)
	原 資 材	53.9	376 (14.3)	253 (25.9)
	(原 油)	9.2	64 (29.5)	45 (46.7)
	(非 原 油)	44.7	312 (11.4)	208 (21.6)
	資 本 財	36.5	255 (13.9)	177 (25.4)
	消 費 財	9.6	67 (9.0)	46 (23.5)
	(穀 物)	2.3	16 (-8.7)	9 (-2.8)
	(其 他)	7.3	51 (16.2)	37 (32.2)
地域別	美 國	24.2	169 (6.5)	113 (16.5)
	日 本	26.2	186 (6.4)	124 (23.4)
	E C	12.0	84 (29.6)	58 (20.8)
	其 他	37.1	259 (19.9)	181 (34.9)
	ASEAN	7.3	51 (22.6)	35 (35.1)
	北 方	4.2	29 (27.8)	23 (65.8)

註：通關基準. ()안은 前年同期對比增加率
資料：貿易協會

- 部門別로는 機械類, 金屬, 原油 등이 輸入急增을 주도하고 있으며 鑛物, 化學製品, 農水產物 등도 매우 높은 增加勢를 보이고 있음.
- 機械類의 輸入增加는 모든 산업에 걸친 競爭力強化投資 및 建設景氣의 好況에 따른 建設關聯裝備의 導入增加를 반영하고 있음.
- 鐵鋼 및 其他金屬製品의 輸入增加는 建設部門 및 機械産業의 輸入需要增加를 반영하고

있음.

- 原油輸入의 增加는 걸프사태의 導入油價에 대한 時差效果 및 石油消費의 增加에 기인함.
- 7월까지 금년도 經常收支赤字는 70.4億달러에 이룸.
- 貿易外收支는 운수수지(9.0億赤字 → 13.5億赤字)와 여행수지(1.6億黑字 → 3.3億赤字)의 악화로 7월까지 7.4억달러의 적자를 보임.

• 운수수지는 13.5億달러의 적자(前年同期：9.0億달러 赤字)를 보이고 여행수지는 3.3億달러의 적자(前年同期：1.6億달러 黑字)를

보임.

• 移轉收支는 걸프戰分擔金과 개인송금수지의 악화로 7월까지 2.3억달러의 적자로 반전.

<表 15> 部門別 輸入動向

(億달러, %)

	1990. 1~5	1991. 1~5	前年同期對比 增加率
總 輸 入	270.6 (100.0)	338.3(100.0)	25.2
機 械 類	60.6 (22.4)	82.7 (24.4)	36.5
金 屬	25.3 (9.3)	34.5 (13.4)	36.4
原 油	25.4 (9.4)	33.6 (9.1)	32.3
鑛 物	39.5 (14.6)	49.8 (14.4)	26.1
化 學	53.5 (15.3)	66.1 (19.5)	23.6
農 水 產	35.6 (13.1)	40.8 (10.8)	23.0
電 子	42.9 (15.9)	49.5 (14.6)	15.4
織 維	9.1 (3.3)	10.3 (3.0)	13.2
其 他	3.7 (1.3)	4.6 (13.6)	24.3

註：通關基準. ()안은 占有率

<表 16> 經常收支動向

(億달러, %)

	1990				1991			
	1/4	2/4	7月	1~7月	1/4	2/4	7月	1~7月
經常收支	-10.7	-4.6	4.9	-10.4	-39.4	-19.2	-11.9	-70.4
貿易收支	-10.5	-3.0	5.1	-8.4	-35.7	-15.6	-9.5	-60.8
貿易外收支	-0.5	-1.7	-0.6	-2.8	-3.1	-1.9	-2.3	-7.4
受 入	33.1	32.6	11.4	77.1	35.9	38.8	12.5	87.1
	(15.2)	(3.2)	(12.8)	(9.5)	(8.4)	(18.9)	(10.1)	(13.1)
支 給	33.6	34.3	12.0	79.9	39.0	40.7	14.8	94.5
	(21.4)	(12.8)	(16.2)	(16.8)	(15.9)	(18.6)	(24.0)	(18.3)
移轉去來	0.3	0.2	0.4	0.9	-0.6	-1.6	-0.1	-2.3

註：()안은 前年同期對比增加率

2. 向後の 經濟與件

1) 海外與件

— 걸프戰 早期終戰과 유가하락에 따른 物價上昇勢鈍化 및 景氣浮揚에 힘입어 2/4분기 이후 好戰될 것으로 豫想되었던 主要先進國經濟가 최근까지도 부진한 成長勢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미국의 경우 下半期이후 經濟成長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임.

• 內需의 萎縮으로 지난 2/4분기에 3분기째의 마이너스成長을 보인 美國經濟는 4/4분기 이후 본격적인 回復勢를 보일 전망.

• 금년 1/4분기에 전분기대비 年率 11.2%의 높은 成長率을 보였던 日本經濟는 內需의 둔화로 2/4분기에 급속한 成長鈍化를 겪었으며 향후 金融緊縮의 持續에 따라 3%대의 經濟成長을 유지할 전망.

<表 17> 主要先進國 經濟成長率展望

(%)

	1990	1991						1992	
		WEFA			OECD			WEFA	OECD
		上	下	年間	上	下	年間		
美 國	1.0	-1.5	2.4	0.0	-1.8	2.7	-0.2	3.6	3.1
日 本	5.6	4.3	0.4	3.4	3.3	3.2	3.5	3.8	3.5
舊西獨1)	4.5	2.9	-0.2	2.0	2.4	1.8	2.8	2.2	2.2

註：1) WEFA의 1991~92전망은 統獨基準임.

資料：OECD, Economic Outlook, 1991. 7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1. 7

• 舊西獨經濟는 통일 특수에 따른 내수의 호조로 작년중 4%대의 成長율을 보였으나 금년에 접어들어 物價壓력과 高金利 등의 影響으로 成長의 둔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低성장세는 내년으로 이어질 전망.

— 상반기중 배럴當 17.2달러(OPEC평균유가

기준)선에서 안정세를 보였던 國際油價는 先進國의 景氣回復과 소련의 石油輸出減少 등의 影響으로 향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92년중 배럴당 20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表 18> 國際油價展望

(달러/배럴)

	1990	1991		1992
		上半期	下半期	
現物油價(OPEC平均) 1)	21.2	17.2	18-21	19-21

註：1)期間平均

資料：에너지經濟研究院, 에너지動向, 1991. 6. 17

— 최근 美國의 세계경제예측기관인 WEFA 는 향후 달러貨가 美國經濟 回復推移 등으로 인하여 92년 上半期까지 強勢를 持續하다가 그이후 약세로 反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弱勢로의 反轉이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通關資料에 의할때 輸出增加勢는 7~8월 중 크게 鈍化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금년 上半期の 輸出回復勢는 주로 市場多邊化效果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효과는 그 持續性이 불확실시되는 한편 美國과 일본의 既存市場에서의 輸出回復展望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음.

2) 輸出與件

<表 19> 主要換率展望

	1990	1991		1992
		上半期	下半期	
엔/달러	135.40(-5.9)	138.15(2.0)	144.0(6.0)	140.0(-2.9)
마르크/달러	1.4928(13.3)	1.8095(17.5)	1.900(21.4)	1.725(-10.1)

註：期末基準. ()안은 엔貨 혹은 마르크貨의 前年末對比 切下率(%)

資料：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1991. 8

<表 20> 輸出推移

(前年同期對比 金額增加率：%)

	1990				1991					
	1/4	2/4	3/4	4/4	1/4	2/4	5月	6月	7月	8月
輸 出	-1.1	4.6	5.9	6.7	10.3	17.6	20.5	14.2	2.4	8.3
L/C來到	10.6	-4.1	2.4	9.7	-0.1	8.9	7.3	2.0	12.5	4.8

註：通關基準

• 금년초 이후의 西歐通貨切下로 인하여 향후 얼마간 EC를 위시한 西歐로의 輸出增加鈍化 예상.

• 政治·經濟의 불안정으로 東歐와 소련으로의 輸出潛在力에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음.

• 기존시장에서는 價格競爭力의 지속적 약화로 인하여 美國 등에서 景氣回復勢에도 불구하고 輸出回復에 苦戰이 예상된다.

3) 內需與件

— 91년 5월 3일 및 7월 9일자로 政府는 建設景氣鎮靜을 위한 일련의 시책을 실시한 바 있음.

• 위탁·숙박시설, 대형판매시설 등 시급성이 없는 商業用建物建築의 許可를 91년 9~12월 혹은 92년 6월말까지 제한.

• 대형호화빌라 및 연립주택의 건축과 40평 이상 다세대·다가구주택의 再建築許可를 91년 9~12월 혹은 92년 6월末까지 제한.

• 地方都市의 민營아파트着工 및 分讓時間을 91년 9월이후 혹은 92년도나 그 이후로 연기.

• 시급성이 없는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의 廳舍建築工期를 연기.

— 거둬진 建設景氣鎮靜對策의 영향으로 금년 2/4분기 이후 建設景氣는 현저히 둔화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내년 上半期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내년 下半期에는 住居用建設工事의

계속, 社會間接資本設備의 확충, 건축규제해제 시 이에 따른 건설재개효과, 선거와 관련된 지역공사 등으로 또 다시 10%이상의 增加勢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음.

— 建設投資增加의 둔화와 特別外貨貸出의 소진 등의 영향으로 設備投資先行指標들도 이미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 下半期 이후 設備投資의 둔화가 예상됨.

• 그러나 자동화투자등 競爭力強化努力과 輸出回復에 대한 기대 등으로 設備投資에 대한 潛在需要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表 21> 建設動向地標

(前年同期對比 增加率: %)

	1990				1991		
	1/4	2/4	3/4	4/4	1/4	2/4	7月
建設投資	43.2	29.0	25.5	20.3	24.4	14.3	
建設許可面績	48.3	25.5	40.7	16.6	12.3	-6.4	21.2
建設受注額	89.7	-44.7	66.8	44.1	3.9	26.0	50.1

<表 22> 設備投資動向指標

(前年同期對比 增加率: %)

	1990				1991		
	1/4	2/4	3/4	4/4	1/4	2/4	7月
設備投資	21.0	19.2	17.5	16.7	17.3	15.5	
國內機械受注額 1)	39.5	65.6	14.0	39.5	0.6	-18.4	65.9
機械輸入許可 2)	36.6	53.3	73.6	51.5	26.6	-5.4	-18.1
	(46.5)	(61.4)	(92.1)	(56.8)	(20.1)	(-12.36)	(-24.3)

註: 1) 선박제외

2) 선박제외. ()안에는 선박포함 금액기준.

— 通貨供給의 긴축이 이루어지고 投資需要의 鈍化勢가 지속되는 경우 民間의 消費性向도 둔화되고 總消費도 民間消費의 주도아래 둔화될 전망임.

4) 輸入與件

— 通關資料에 의하면 7~8월중에도 상반기의 輸入急增勢가 지속되고 있음.

<表 23> 輸入推移

(前年同期對比 金額增加率: %)

	1990				1991			
	1/4	2/4	3/4	4/4	1/4	2/4	7月	
輸 入	12.9	10.3	8.2	22.5	24.9	23.5	33.1	16.2
L/C 發行	9.8	7.0	32.0	38.3	30.2	22.1	26.0	14.5

註: 通關基準.

— 금년 상반기의 높은 輸入額增加勢는 작년 초이후의 高成長으로 인한 높은 實質輸入增加勢 및 輸入單價急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下半期이후는 輸入單價의 하락으로 輸入額增加勢가 상당히 둔화될 전망이지만 實質輸入增加勢의 둔화여부는 內需와 輸出需要 및 가격 경쟁력의 動向에 의하여 좌우될 전망임.

5) 勞動市場與件

— 근래의 高賃金은 대체로 高速成長으로 인한 인력난과 높은 物價上昇率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앞으로도 經濟成長의 둔화가 없이는 임금의 안정화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금년도 平均賃金の 상승율은 16~17%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도 급속한 賃金上昇鈍化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勞使紛糾現況을 분석하여 불태 외형적인 勞使關係安定化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단위에서 勞使間의 긴장이 완화되고 협력분위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6) 財政運用與件

— 1989년이후 財政支出增加率은 經常 GNP增加率을 상회하여 왔으나 이는 福祉財政擴大와 社會間接資本擴充 등을 통한 재정기능정상화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不可避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규모는 89년에 20.1%, 90년 26.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91년도의 경우 14.3% 증가에 이를 전망임.

<表 24> 一般會計 增加率 推移

(10억원, %)

	一般會計		一般會計 / GNP
		增加率	
1988實績	18,025	14.1	14.3
1989實績	21,635	20.1	15.3
1990實績	27,456	26.8	16.3
1991展望	31,383 1)	14.3	15.7
1992豫算案	33,505	6.8	

註: 1) 2次追更包含.

— 1992년도 政府豫算案에 의하면 財政規模는 前年對比로 6.8%내외의 극히 낮은 증가율에서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과다한 追更編成이 배제되는 경우 92년도의 재정은 매우 긴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주요선거에 즈음하여 토목공사와 추곡수매 등 所得移轉의 事業에 대한 政治的 需

요가 증대하여 追更豫算에 대한 압력은 尙存할 것임.

7) 通貨金融與件

— 작년에 비하여 금년의 通貨政策은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表 25> 通貨地標 推移

(前年同期對比 平殘增加率：%)

	1989	1990					1991					
		1/4	2/4	3/4	4/4	年間	1/4	2/4	5月	6月	7月	8月
본원통화	36.9	28.7	25.1	23.4	22.3	24.7	16.0	20.1	19.3	20.9	17.5	19.3
M1	14.1	28.9	27.6	6.3	11.9	18.1	15.0	10.6	11.6	11.7	19.8	19.4
M2	18.4	23.5	22.3	20.0	19.3	21.2	18.4	18.5	19.3	18.1	18.9	17.9
M2 B	21.1	26.4	28.7	24.7	25.9	26.4	19.0	14.7	15.5	13.8	—	—
M3	26.4	29.2	29.7	29.6	29.4	29.4	27.0	25.8	26.2	25.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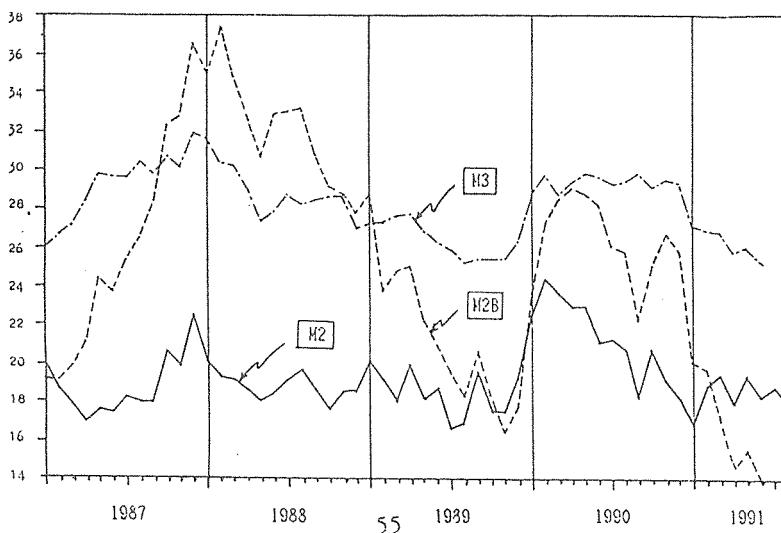
- 작년 1~8월의 기간중 22.4%의 증가율을 보였던 總通貨(M2)가 금년동기중에는 18.4%의 증가에 그침.
- 또한 단자사의 업종전환으로 第 2金融圈의

자금증개가 위축됨에 따라 第 2金融圈의 유동성을 반영하는 M2B의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

- 總流動性(M3)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음.

[圖 2] 主要通貨指標의 推移

(前年同期對比 平均增加率：%)



— 통화의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證市沈滯의 지속으로 直接金融調達與件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市中金利水準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表 26> 市中金利推移

(%)

	1989		1990				1991			
	9月	12月	3月	6月	9月	12月	3月	6月	7月	8月
「콜」資金	14.1	14.5	12.2	14.9	14.5	15.0	15.1	19.6	19.5	19.9
通安證券	15.1	14.7	14.3	16.1	15.6	16.8	16.1	18.5	18.4	18.2
會社債	15.8	15.2	15.1	16.1	17.3	18.5	18.5	19.1	18.9	18.8

— 올해의 남은 기간동안에도 通貨管理의 緊縮基調를 지속하면 올해의 總通貨增加率은 목표의 上限인 19%以下에서 유지될 것임.

—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通貨管理與件이 惡化될 전망임.

- 대규모의 株式發行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間接金融에의 의존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함.

- 단자사의 업종전환에 따라 어음관리구좌(CMA)의 잔고가 크게 縮小될 것이며 이로 인한 어음割引減少規模는 올해의 2兆 7,600 億원 그리고 내년의 7兆2,000 億원으로 추정되는 바, 이 만큼 第2金融圈의 資金仲介機能이 위축될 것임.

- 내년초에 株式市場의 對外開放이 시작됨에 따라 海外證券投資資金이 유입되어 通貨供給擴大要因으로 작용할 것임.

- 社會間接資本의 投資財源確保를 위한 國公債發行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 이러한 債圈發行은 利率上昇壓力를 수반할 것임.

- 중요한 選舉가 연속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資金需要가 증대될 것임.

- 金利自由化의 추진일정에 따라 내년 下半年 이후 長期受信金利 및 與信金利가 自由化되면 市中金利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 예상됨.

3. 向後の 經濟展望

1) 91년 經濟展望

— 정부는 物價不安과 國際收支問題에 대응하여 通貨를 긴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民間部門의 建設과 消費를 억제해 나가고 있음.

- 元貨는 年末까지 對달러 切下를 다소 加速하여 760원/달러線에 이르고 그 결과 元貨의 금년도의 平均名目實效換率이 昨年對比 3.4% 切下할 것으로 전망함.

— 이와 같은 전제아래 그 결과 금년 下半年에는 <表 27>에 보인 바와 같이 經濟의 불균형적 모습이 다소간 완화될 전망임.

<經濟成長>

- 上半期에 비해서나 前年同期에 비해서나 建設投資의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設備投資의 증가세도 현저히 둔화될 전망이며 또한 民間消費의 增加勢도 다소 둔화

- 實質輸出의 증가세는 上半期에 비하여 다소 둔화되지만 前年同期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임.

- 實質輸入의 증가세는 內需鈍化의 영향으로 上半期에 비하여 둔화되지만 작년동기에 비해서는 강세를 유지할 것임.

<表 27> 1991年 經濟展望

(1991年 9月 現在)

	1990			1991		
	上半	下半	年間	上半	下半	年間
實質 GNP 增加(%)	10.2	8.1	9.0	9.1	8.2	8.6
總 消 費	11.0	9.4	10.2	8.9	8.7	8.8
(民 間)	(11.5)	(9.4)	(10.4)	(9.1)	(8.7)	(8.9)
(政 府)	(8.1)	(9.7)	(9.0)	(8.1)	(9.0)	(8.6)
總 固 定 投 資	27.6	20.1	23.4	17.5	10.6	13.7
(設 備)	(20.1)	(17.1)	(18.4)	(16.3)	(13.0)	(14.5)
(建 設)	(34.6)	(22.8)	(27.9)	(18.5)	(8.5)	(13.1)
商 品 輸 出	2.5	6.5	4.6	11.8	10.5	11.1
商 品 輸 入	15.4	11.4	13.2	17.7	14.6	16.1
經常收支 (億 달 러)	-15	-7	-22	-58	-18	-77
貿易收支	-14	-7	-20	-51	-12	-63
輸出 1)	292	339	631	330	375	705
輸入 1)	(0.5)	(4.8)	(2.8)	(12.9)	(10.6)	(11.7)
	306	346	651	381	387	768
	(13.5)	(15.7)	(14.6)	(24.5)	(12.1)	(17.9)
貿易外 및 純移轉	-2	0	-2	-8	-6	-14
物價上昇率 (%) 2)						
GNP 디플레이터	7.9	9.9	8.9	9.5	8.5	9.0
都 賣 物 價	2.5	5.8	4.2	6.8	3.8	5.3
	(3.3)		(7.4)	(1.2)		(3.1)
消費者物價	7.7	9.5	8.6	10.0	9.1	9.6
	(7.4)		(9.4)	(6.5)		(9.7)

註：1) ()안은 前年對比增加率.

2) 年平均基準. ()안은 前年末對比 物價上昇率.

• 內需의 증가둔화로 下半期의 經濟成長率은 上半期에 비하여 현저히 둔화되어 8.2%내외에 머물 것임.

<國際收支>

• 上半期에 비하여 名目輸出增加率은 實質輸出動向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지만, 名目輸入增加率은 實質輸入增加의 현저한 둔화 및

輸入單價의 대폭적인 하락의 영향으로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 그 결과 貿易收支는 4/4분기에 균형수준에 접근하고 下半期全體로는 12억불내외의赤字를 기록하는데 그칠 것임.

• 원래의 계절적 요인과 긴축적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貿易外 및 移轉收支上的 赤字도 上半期에 비하여 감소할 전망임.

• 그 결과 經常收支赤字도 上半期에 비하여 크게 축소되어 18억불수준에 그칠 것이 예상된다.

<物價>

- 작년에 누적되었던 物價上昇要因이 금년 上半期에 실제물가에 이미 반영되었고, 또한 內需增加가 둔화됨에 따라 下半期の 消費者物價上昇率은 上半期對比로나 前年同期對比로나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 都賣物價는 下半期에도 비교적 安定勢를 유지할 전망이며, 작년 下半期中 걸프事態로 都賣物價가 급등하였던 것을 반영하여 前年同期對比 上昇率은 上半期보다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 年間으로 經濟成長率은 작년보다 다소 낮은 8.6%내외를 기록하고 經常收支는 작년보다 대폭 확대된 77억불정도의 赤字를 기록하고 物價上昇率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며 특히 消費者物價上昇率은 여전히 9%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經濟成長率의 하락은 내수의 증가세가 작년에 지나치게 왕성하였다가 금년에 상당히 둔화되었음에 기인하는데, 금년의 實質輸出增加勢의 회복이 成長率의 하락세를 크게 완화시켜 줌.
- 輸出增加勢의 현저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經常收支는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것은 輸入增加勢가 輸出增加勢를 여전히 앞서고 있기 때문임.
- 物價上昇率이 여전히 높은 것은 經濟成長率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수준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결과 특히 심각한

人力難과 貨金急騰勢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2) 92년 經濟展望

- 92년의 經濟動向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가장 큰 요인은 內需의 動向 특히 內需緊縮의 전망으로서 이것은 建設, 財政 및 通貨對策에 의하여 좌우될 것임.
 - 또하나의 요인은 貨金 및 換率의 동향으로서 이것은 產業의 國際競爭力과 物價動向에 주요영향을 행사할 것임.
 - 이외에도 勞使關係, 技術開發, 通商外交 등 보다 광범위한 國際競爭力 決定要因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내년의 建設, 財政, 通貨政策 등에 대한 政府의 經濟運用方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貨金, 換率 등의 전망에도 여러 불투명한 요소가 많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내년 經濟를 의미있게 豫測하기에는 여러가지의 어려움이 있음.
 - KDI는 관행적으로 11월말 혹은 12월초에 次年度 經濟展望을 발표하고 있음.
- 經濟展望, 國際收支, 物價 등 主要巨視經濟指標는 통화, 재정정책은 물론 환율 및 임금수준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됨. 本研究院 분석에 의하면 總通貨增加率, 財政支出, 名目實効換率의 각 1% 포인트변동이 經濟成長, 消費者物價 및 國際收支에 미치는 효과는 <表 28>과 같음.

<表 28> 通貨, 財政支出 및 換率變動의 乘數效果(1次 年度)

	GNP(%)	消費者物價(%)	國際收支(億 달러)
通貨 1% 減少	-0.30	-0.08	1.20
財政支出 1% 減少	-0.38	-0.10	1.23
名目實効換率 1% 切下	0.17	0.30	1.67

— 따라서 92년의 經濟는 政府政策의 優先順位 및 정책혼합의 선택에 따라서 그 모습이 정해질 것임.

<參考> 91年度 通關基準 貿易收支展望

— 輸出, 輸入 및 貿易收支統計는 「國際收支基準」인가 혹은 「通關基準」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주요차이는 輸出入品의 評價價格上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 通關基準上으로는 輸出品은 「본선인도」(f. o. b.)가격으로, 수입품은 「보험·운임포함」(c. i. f.)가격으로 평가하고, 國際收支基準上으로는 輸出과 輸入 두가지 모두 f. o. b. 가격으로 평가함.

• 포착시점상의 차이도 중요함. 通關基準貿易收支는 輸出과 輸入을 通關時點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國際收支基準貿易收支는 거주자와 非거주자간의 所有權移轉時點에서 輸出과 輸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함.

• 그 결과 미완성선박의 통관, 재수출, 재수

입, 리스계약에 의한 비행기 도입 등은 모두 通關基準 貿易收支에는 계상되지만 國際收支基準 貿易收支에는 계상되지 아니함. 또한 공해상에서 참치를 잡아 판매한 경우 通關基準 輸出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國際收支基準 輸出에는 포착됨.

— 통상적으로 通關基準輸出은 國際收支基準輸出보다 2~3% 크게 나타나고 通關基準輸入은 國際收支基準輸入보다 6~7% 크게 나타남. 따라서 通關基準貿易收支赤字는 國際收支基準 貿易收支赤字보다 큰 규모로 나타남.

— 商品의 輸出入에 따른 外換需給變化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通關基準統計 보다는 國際收支基準統計를 사용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國際收支基準 統計와는 달리 通關基準 統計는 즉각적으로 수집되는 편리점이 있어 상공부, 무역협회 등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

— 본 보고서에 제시된 1991년도 國際收支基準 貿易收支展望(<表 27> 參照)을 通關基準으로 환산하여 어림치를 제시하면 <表 29> 과 같음.

<表 29> 1991년 貿易收支展望 (通關基準)

(億달러, %)

	1990			1991		
	上半	下半	年間	上半	下半	年間
貿易收支	-280	-21	-48	-64	-20	-84
輸出	298	353	650	340	390	730
	(1.8)	(6.3)	(4.2)	(14.1)	(10.6)	(12.2)
輸入	325	373	698	404	410	814
	(11.6)	(15.5)	(13.6)	(24.2)	(9.8)	(16.5)

註: ()안은 前年同期對比增加率, %

4. 當面經濟問題와 對應方案

1) 當面問題와 對應方向

— 작년에 이어 올해 上半期에도 우리경제는 高速成長勢를 유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높은

物價上昇勢가 지속되고 經常收支赤字가 확대되고 있음.

- 높은 物價上昇勢 賃金急騰과 惡循環의 관계를 이루어 經濟의 成長潛在力을 약화시키고 또한 經常收支赤字의 지속적 확대를 초래할 것이 우려됨.

- 經常收支의 赤字擴大는 외채의 累積을 가져올 뿐 아니라 그것이 國內産業의 經濟力弱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높은 物價上昇勢와 國際收支의 약화는 內需主導下의 지나친 高速經濟成長으로 인한 景氣過熱과 賃金急騰 및 産業國際競爭力弱화에 기인하는 것임.

- 지나친 高速成長이 지속됨에 따라 인력난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資金急騰은 國內物價의 급등과 對外競爭力弱화를 초래.

- 내수의 지나친 강세는 消費와 投資를 통하여 輸入의 급증과 輸出産業의 內需轉換을 유발하고 나아가서 인력 등 國內資源의 서비스部門으로의 移動을 초래.

- 향후 經濟運營의 기본목표는 物價安定과 國際收支改善에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安定的 運營基調를 최대한 강화해 나가고 이와 동시에 보다 직접적인 차원의 國際競爭力弱화 노력을 倍加해 나가야 할 것임.

- 다행히 下半期에 접어들어 物價不安과 經常收支赤字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의 政策努力은 이러한 움직임의 趨勢의 定着을 圖謀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建設景氣鎮靜對策을 일관성있게 추진함과 아울러 財政·通貨政策上的 緊縮基調를 유지·강화시키도록 함.

- 國際競爭力的 강화를 위해서는 價格競爭力, 品質競爭力 및 技術競爭力的 세가지에 걸친 競爭力強化努力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함.

- 價格競爭力的 약화는 品質競爭力과 技術競爭力 제고로 상쇄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지난 수년간 國際競

爭力을 상실하여 오고 있음.

- 國際競爭力強化 노력은 勤勞者와 經營者로 구성되는 기업이 그 主體로서, 이러한 努力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內需의 鎮靜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短期的인 國際競爭力強化 방법은 賃金安定 혹은 換率切下를 통한 單位勞動費用의 引下에 있음.

- 두 가지 모두 內需緊縮下에서만 효과적으로 추구될 수 있음.

- 品質競爭力 및 技術競爭力 향상은 진정한 勞使協力과 企業經營革新을 전제로 하는 과제이며, 이러한 노력도 內需의 진정을 통한 企業經營環境의 쇄신이 없이는 본격적으로 촉발되지 아닐 것임.

- 이러한 노력들과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消費生活의 합리화를 위한 社會雰圍氣를 조성하고 또한 外貨貸出制度和 같이 輸入을 조장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補完的인 노력으로서 內需의 緊縮과 國際競爭力強化 施策이 先行하지 않는 한 의미와 实效性을 喪失할 것임.

- 또한 消費行爲 혹은 輸入行爲自體의 규탄이나 무리한 방법에 의한 억제는 短期的으로 다소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자칫 經濟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糊塗하고 또한 國際的 通商摩擦을 조장하며 나아가서 市場經濟의 논리적 틀 자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됨.

- 향후 經濟의 均衡回復를 위한 주요과제는 구체적으로 (1) 通貨緊縮과 金融制度改善, (2) 財政運用의 效率化, (3) 勞使協力の 增進과 賃金の 安定化 및 (4) 技術開發體制的 再編의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2) 主要當面課題

(1) 通貨緊縮과 金融制度改善

- 현재의 通貨緊縮基調를 연말까지 지속할 뿐

아니라 내년에도 堅持 내지는 強化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통화의 긴축을 위해서는 本源通貨의 공급이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本源通貨供給의 큰 부분을 점유하는 各種政策金融을 축소하고 또한 일반은행에 대한 지불준비금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本源通貨의 억제대신 창구지도나 通貨債發

행에 의존하는 경우 流動性 供給抑制 효과가 의문시되고 또한 金融發展이 저해됨.

• 本源通貨를 관리함에 있어 再割引에 대한 金利補助를 축소하고 재할인금리와 金融市場金利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함.

• 支準管理의 강화와 受信內與信의 관행 정착을 위하여 支準不足保全을 위한 韓銀資金의 벌칙금리를 市場金利水準으로 조정하도록 함.

<表 30> 韓國銀行貸出金の 構成

(10억원, %)

	90年 6月 末殘	91年 6月 末殘	純 增
一 般 資 金	5,760 (51.9)	5,835 (44.1)	75 (3.6)
商 業 兒 息 再 割 引	3,027 (27.3)	4,789 (36.2)	1,762 (83.0)
農 · 水 · 畜 資 金	894 (8.1)	1,047 (7.9)	153 (7.2)
貿 易 金 融	852 (7.7)	985 (7.4)	133 (6.3)
기 타	580 (5.2)	571 (4.3)	-9 (0.0)
합 계	11,105 (100.0)	13,227 (100.0)	2,122 (100.0)

註： ()안은 構成比.

— 長期貯蓄性預金の 金利를 상향조정하여 은행의 長期與信財源을 확충하고 金融貯蓄증대와 근검절약기풍을 유도하도록 함.

• 國債와 通安證券을 대상으로 하여 稅金優待少額國公債貯蓄을 허용하고 세제상 우대를 제공

• 銀行의 生産性提高를 유도함으로써 預貸마진의 축소를 촉진하여 與信金利의 上昇壓力을 완화하도록 함.

— 施設財의 輸入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外貨貸出制度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 금년 上半期중 外貨貸出實績은 30.4억달러로서 施設財總輸入額의 24.3%에 해당하고 있음.

• 同제도는 해외의 低利金融에 의존하는 만큼 利差補填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施設財

輸入을 적극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產業政策次元에서나 國際收支管理次元에서나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外貨貸出制度를 축소 혹은 폐지하던지 혹은 輸入施設財와 國產施設財간의 金利차를 해소하도록 하고, 後者의 경우에는 外貨貸出制度和 元貨國產機械購入資金을 동일한 金利에 의하여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財政運用의 效率化

— 특히 92년에는 政治的 需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追更編成을 止揚하여 현재의 政府豫算案에 제시된 바와같이 財政의 緊縮基調를 유지하여야 할 것임.

• 1992年 豫算規模는 前年總豫算對比 6.8% 증가에 그치고 있어 예년과 같은 과도한 追更을

억제할 경우 財政은 총수요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같은 규모의 可用財源內에서도 성장에부분의 타개 등에 대한 支出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財政支出을 效率化해야 할 것임.

• 事業目的上 實効性이 적은 特別會計를 廢止하고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統合하며, 公共資金의 여유분을 財政投資特別會計의 안정된 財源으로 活用하도록 하는 등 特別會計와 基金의 정비가 요구됨.

• 추곡수매, 農漁村 부채탕감 및 低利融資 등의 所得移轉의 지출을 억제하고 農漁村構造改善 및 農業生産의 하부구조개선 등 생산성향상 및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는 방향으로 轉換시켜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豫算運用 및 評價에 있어서도 단순히 中央政府 一般會計豫算뿐만 아니라 他計定을 포함한 統合豫算을 기준으로 規模 및 構造를 조정해야 할 것임.

— 또한 부처별 이해에 의한 무분별한 事業推進要求를 費用·便益分析 등에 의해 客觀的 體系的으로 평가하여 投資事業의 優先順位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의 도입이 필요함.

• 美國의 國會豫算局(Congressional Budget Office)등과 같은 기구의 설립 및 分野別 豫算專門家를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3) 勞使協力の 增進과 賃金の 安定化

— 價格競爭力과 品質競爭力 향상을 위해서는 賃金安定과 勞使協力を 다져나가야 할 임.

— 價格競爭力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賃金の 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內需의 緊縮과 이를 통한 人력난의 완화를 추구하면서 勤勞者의 협력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 緊縮基調를 견지·강화하면서 經濟安定화와 國際競爭力回復 등에 있어서의 賃金

安定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노력함.

• 對話窓口를 상설화하고 이를 통하여 政府, 勞動團體, 使用者團體간에 經濟運營에 관한 합의조성을 추구

• 주기적인 賃金센서스를 통하여 賃金情報의 정밀화와 공개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일부 대기업 및 일부업종에서 돌출되고 있는 불합리한 高賃金現象에 대한 시정압력을 조성

• 公務員俸給의 인상에 있어서는 확일적인 상향조정을 지양하고 직급별 人力需給現況과 직무의 종류에 따른 선별적인 조정을 모색

— 기업차원에서 生産效率의 低下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勞使關係管理體系의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단기적으로는 賃金の 安定이 중요하지만 中長期的으로는 高賃金時代에 企業과 勤勞者 자신이 어떻게 國際競爭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勞使가 함께 풀어나가는 분위기와 자세를 배양하도록 함.

• 이러한 관점에서 經營革新 및 교육과 훈련을 통한 勤勞者의 근면성 회복과 기능수준제고가 추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現場管理의 개선을 통해 作業強度의 제고, 省力化, 遊休時間의 감소 등 作業現場의 效率化 努力을 전개토록 유도

• 지난 수년간 勞·使 兩側에 의해 勞動關聯法改定論議가 수시로 제기된 바 과거 4년간의 勞使關係進行過程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法體制上的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制度改善를 추구함.

(4) 技術開發體制的 再編

— 中長期的으로 볼때 國際競爭力向上을 위한 대응방안은 오로지 技術開發의 加速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技術開發을 위한 戰略과 體制를 再編하여야 함.

• 日本企業의 新製品을 모방개발하고 품질·성능의 열위를 價格優位로 보완하는 競爭戰略은

일본기업의 加速되는 製品革新, 技術移轉의 忌避, 技術사용료의 引上, 핵심부품의 供給制限 등으로 인하여 限界에 도달하였음.

— 90년대 技術開發의 목표는 현재의 상품보다는 世界市場의 次世代新製品을 豫見하고, 이들 製品에 대한 技術隔差를 事前에 단축하는 未來指向的 技術開發戰略으로의 轉換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産·學·研간의 유기적인 협조에 의존하는 국가적 研究開發體制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기업은 不斷하고 급속한 技術變化에 대응하여 未來指向的 競爭·經營戰略과 製品開發目標을 지속적으로 수립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基礎技術의 상업화를 위한 研究開發에 집중토록 함.

• 政府는 産業과 學界에서 필요로 하는 科學技術人力을 양성하는 한편 기업들의 研究開發戰略의 調整을 추진하고 동시에 産業界와의 협력아래 産業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을 파악하여 그 공동개발을 추진함.

— 기업의 多國籍化와 産業內分業이 보편화되어가는 추세아래 研究開發의 焦點은 핵심적 소재, 부품 및 기계류의 개발에 두어야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核心技術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先進國企業과의 戰略的 提携를 통해 基礎技術을 획득하여 企業化하도록 함.

— 新製品開發體制의 主機能은 불가피하게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의 개발에 있을 것인바 先進國型 中小企業構造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技術水準向上을 위한 技術開發支援體制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

• 中小企業 및 聯關企業이 밀착하여 中小企業技術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研究開發하는 産業別 專門研究機關과 이에 연계된 指導機關의

段階的 발전을 추진하여야 함.

• 대기업은 經營資源을 기초기술의 연구, 新製品의 개발 등 知識集約的 活動에 집중하고, 혁신적 중소기업과 다양한 수직적 分業關係를 형성하여 技術情報 등 各種情報을 교환하도록 함.

— 國家的 技術開發體制의 재편을 위해서는 경제의 安定化와 開放化가 착실히 추진되고 勞使協力關係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政府는 이러한 與件을 조성해 나가면서 技術開發體制의 再編努力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임.

5. 맺는말

— 거듭된 建設景氣鎮靜施策과 通貨緊縮 등의 영향으로 우리경제는 현재 성장의 둔화세와 아울러 物價不安과 經常收支赤字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經濟運營基調가 견지되고 강화되는 한 景氣過熱에 따른 經濟의 不均衡의 모습은 계속 완화되어 나갈 전망임.

— 그러나 緊縮에 따르는 일부기업과 일부국민의 고통, 그리고 내년의 주요선거일정 등으로 인하여 緊縮基調의 維持 내지 強化에는 상당한 抵抗이 있을 것이며, 특히 主要選舉의 실시에 즈음하여 기업, 勤勞者, 農民 등의 集團利己主義가 확산될 것이 우려됨.

— 이러한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經濟의 安定化가 계속 지체되고 심지어는 지금의 安定化조짐마저 霧散되고 物價不安과 國際收支問題가 오히려 深化되며 그 결과 成長潛在力이 구조적으로 弱화될 展望이어서 政府는 강력한 안정화외지를 표명·유지해 나가고 국민들은 國家經濟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經濟安定化에 따르는 고통을 분담해 나갈 것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음.